

# 무안몽탄중, 탄소중립 실천 위한 '생태환경프로그램' 운영

### 숲체험 '나무와 새' 주제로 우리마을 숲체험 교과융합 프로젝트 진행 전교생 23명·교직원 12명·제암산 국립공원 숲 해설사 2명 함께 참여

무안몽탄중학교는 최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태환경프로그램으로 우리마을 숲체험 교과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숲체험 주제는 '나무와 새'로 전교생 23명, 교직원 12명, 제암산 국립공원 소속 숲 해설사 2명이 함께하여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대응을 위한 생태감수성 신장의 기회를 마련했다.

무안교육지원청 배차 신청한 통학버스로 우적동 마을까지 간 다음 숲이 시작되는 내리마을과 정수리 마을 갈림길에 도착하여 해설사 한 분과 3학년 한 팀, 다른 해설사 한 분과 1.2학년 한 팀으로 나누어 남천마을 동각까지 2시간 동안 나무와 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숲 체험을 하였다.

숲 길은 산 허리를 감싸는 소방도로이고 소방도로 양쪽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식물이 자라고 있어서 숲 체험 장소 섭외가 아주 훌륭하다고 제암산 국립공원 소속 숲 해설사께서 감탄하셨다.

숲 해설사는 나무 및 식물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고, 학생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실물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숲 해설사는 수많은 나무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나무잎 뒤에 붙은 노린재(방구벌레)의 짝짓기 모습을 학생들과 같이 탐구하고, 솔잎이 솔방울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으며, 새의 소리는 다섯가지

소리를 낸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주셨다.

숲 체험이 끝나고 나서는 숲체험 소감 나누기 시간을 갖고, 5교시와 6교시에 교과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국어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문화 작품 공모전에 응모할 글짓기를 하였고, 영어는 우리마을 홍보 포스터 그리기를 하였으며, 과학과 기술가정은 우리 마을 식물 도감 만들기를 하였고, 사회와 수학은 축적을 이용한 우리 마을 면적 조사하고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를 하였다.

숲체험을 기획한 본교 교사 박단애 선생님은 아름다운 숲을 가진 몽탄에서 근무한 것이 행운인 것 같다고 하였고, 3학년 서창희 학생은 학교에서 멀리 보이는 산이 항상 궁금했는데 직접 산에 들어서서 소나무, 동백



나무, 굴참나무 등 수많은 나무들과 식물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서 비밀의 화원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참고로 무안몽탄중학교는 2학기 생태프로그램으로 영산강 자연터 탐방이 계획되어 있다. 무안=이성기기자



## 고흥점암초,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고흥 점암초등학교에서는 최근 고흥읍 청소년 문화의 집 앞의 광장에서 전교생이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인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주회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신장하고 꿈과 감성을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 체험의 확대를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민 대상으로 작은 학교의 방과후 활동 및 학교 교육과정, 특색 교육활동을 알리려 인근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점암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은 2019년에 창단하였으며 목관악기인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금관악기인 튜바, 트럼펫, 트럼본과 타악기로 구성된 윈드 오케스트라로 5년이 넘게 전교생이 방과후 시간을 통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학생 단원들과 악기별 지도 강사들은 열심히 공연을 준비한 만큼 진지한 모습이었다. '차이코프스키 행진곡'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버터'와 '동요행진곡'으로 오케스트라 선율로 가득 채웠으며, 연주회를 감상하려는 인근 학교의 초, 중 학생들의 하룻길에 즐거움을 주었다.

이번 연주회에서 클라리넷 연주를 맡은 5학년 강○○학생은 "여러 사람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연주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학부모 회장을 맡은 권○○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외부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모습이 흐뭇합니다."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영광염산중, 일제 침탈의 역사 및 생태환경의 중요성 현장 찾아

영광염산중학교는 지난 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군산의 근대 문화·역사와 일제강점기 쌀수탈 전략을 돌아보고 생태환경보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군산에 위치한 근대역사박물관·세관·근대건축관 등과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군산에 도착한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의 경제수탈 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근대역사박물관에서 호남지역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세곡을 운송했던 물류 유통의 역사와 조운선의 항로를 통해 해양 물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한재희 역사교사와 역사탐방 해설사에게 교육적 가치를 갖는 장소와 유물 중심으로 설명을 들으며 일제의 수탈 현장과 구한말 착취를 당한 민초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으며 미리 준비한 수행 활동지 빈칸을 하나

### 군산에서 일제강점기 쌀수탈의 역사, 서천에서 기후환경의 중요성 배워



하나 채워가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국립생태원에 도착한 학생들은 생태계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생태해설사의 설명을 들은 후, 세계 5대 기후를 재현한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을 관람하며 한반도의 생태계를 비롯하여 세계의 다양한 기후와 각 기후대별 대표 동식물 등 살아

있는 생태계를 생생하게 관찰하고 체험했다.

영광염산중은 지속적인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생명체 간 공생·공존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을 내면화하기 위해 4-H 동아리를 연중 운영하면서 다양한 채소와 화초를 텃밭에 가꾸면서 탄소 절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서희연기자

## 함평교육청, 2023 '온마을 진로·진학 상담의 날' 운영

###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함평교육지원청은 오는 10일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에서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온마을 진로·진학 상담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마을 진로·진학 상담의 날'은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통해 미래를 위한 진로 설계를 돕고 현장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중학생 대상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아이 교육 컨설팅'과 고등학생 대

상 '1:1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학부모 대상 아이 교육 컨설팅은 사전 온라인 검사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에 따른 자녀의 진로·학습·진학에 관한 종합적이고 현실감 있는 접근으로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평=김광춘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